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그리고 그 지도를 만든 김정호(金正浩)를 모른달 사람도 없다. 김정호는 불과 1백30년쯤 전에 죽은 인물로 알려져 있으니 상당히 최근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은 유명한 인물이건만,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아마 그는 1864년 직후 언제까지는 살아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의

인물도 없을 지경으로, 그는 우리 역사에서 그야말로 신비 속의 인물이 다. 당연히 그의 부모나 자식에 대한 것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집안이 양반이었는지, 아니면 종의 자식이었는지조차 확연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흔히 그는 지도를 만들어 나라의 비밀 정보를 해외에 알려주고 있다는 죄목으로 대원군의 쇄국정책 시대에 불잡혀가 옥사한 것처럼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런 짐작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원군 쇄국정책에 獄死說

그래도 그의 호가 고산자(古山子)인 것은 그의 지도에 나타나 알 수가 있다. 또 그에게는 백원(伯元), 백온(伯溫), 백지(伯之) 등의 자(字)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으며 본관은 청도였다.

지금 전해지는 김정호의 첫 지도는 그가 1834년에 만든 <청구도>(靑丘圖)였다. 그리고 그의 지도 가운데 가장 이름을 떨치게 된 지도는 1861(철종12년)에 만든 <대동여지도>였다. 또 그는 1864년에는 <대동지지>(大東地誌)라는 지리지도 썼는데, 이것은 그의 마지막 업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김정호 역시 처음에는 초급장교 정도의 군인생활을 했다고도 전해지는 것을 보면 그는 평민 출신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또 그는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는 만리재(萬里峴)에 살았다고도 전하고, 또는 공덕리(孔德里)에 살았다고도 전한다. 어느 쪽이거나 지금으로 치면 마포 쪽에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大東輿地圖 만든 신비 속 인물 金正浩 <조선 후기>

1861년 대동여지도를 만든 金正浩는 어디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신비 속의 인물이다.

지금의 마포 근처에서 살았다는 김정호는 22첩으로 된 가로 3m, 세로 7m의 대동여지도를 목판으로 인쇄하여 펴낸 과학인물이다.

대동여지도는 지금의 16만분의 1 지도와 비슷한 것으로 산, 하천, 고을, 길 등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평생을 지도제작에 바친 그의 뛰어난 과학정신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태어난 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황해도 어디에서 1800년쯤에 출생했을 것으로 짐작이 갈 따름이다. 그가 평소 친하게 지냈고 세계지도도 함께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실학자 최한기(崔漢綺, 1803~1877)와 태어난 해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죽은 것도 비슷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나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비교적 근대의 인물이면서 김정호처럼 개인적인 배경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

朴星來

(한국외대 사학과교수·부총장 / 과학사)

김정호라는 인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남긴 대표적 지도 <대동여지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 그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그의 뛰어난 과학정신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대동여지도>란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인가?

우선 <대동여지도>는 그 지도 제작의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한 것으로 우리의 전통지도 가운데 가장 정확하다. 우리나라 전체 모양을 그린 지도의 윤곽을 비교해 보면 <대동여지도>의 정확성을 당장 알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윤곽이 비슷해서 금방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16만분의 1 지도 최초 완성

물론 잘 살펴보거나 현대 지도와 윤곽선을 겹쳐 놓아 보면 <대동여지도>의 잘못이 잘 드러난다. 우선 백두산 쪽이 북쪽으로 약간 솟아있고, 함경도가 동쪽으로 불거져 나갔는가 하면, 제주도도 약간 북쪽으로 본토에 접근해 있다. 가장 정확한 전통적 우리 지도인 <대동여지도>는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16만분의 1 지도이기도 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동여지도>보다 조금 앞서 <청구도>가 이미 같은 축척의 지도였지만, <청구도>는 바로 김정호가 만든 것이고, <대동여지도>로 가는 길에 중간 단계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 김정호의 지도가 최초의 16만분의 1 지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지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상당히 사실적으로 나타낸 첫 지

도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를 그 시작으로 잡을 수 있다. 이 지도는 약 40만분의 1 지도라 할 수 있다. 1세기 남짓이 지난 후에 김정호에 의해 우리나라 지도는 40만분의 1 지도에서 16만분의 1 지도로 그 정확도를 높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후에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지도가 더 정확한 것이 만들어진 일은 없는 채 조선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 뜻에서는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지도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 근대 서양식 측량기술을 활용한 지도 작성이 계획되기는 했으나 실행되지 못한 채 나라가 멸망했고, 그 일은 결국 일제에 의해 완성되어 5만분의 1 지도가 현대식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해방 후에는 우리의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사진까지 동원하여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게 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원래 22첩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씩은 가로 20cm, 세로 30cm로 되어 있어서 이들을 모두 이어 놓으면 우리나라의 전국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22장을 모두 붙여 놓으면 가로가 3m, 세로가 7m나 되는 대단히 큰 지도가 되어 웬만한 건물 벽에는 걸어 놓을 도리가 없다. 지금 <대동여지도>는 영인되어 널리 보급되어 있고 벽에 걸어 놓은 곳이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큰 원래의 것이 아니라 김정호가 뒤에 한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다시 만든 한장짜리 <대동여지도>로서 90만분의 1 지도이다. 후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려진 것이 없지만, <대동여지도> 22

첩은 목판 70장 이상에 하나씩 새겨 인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판을 새길 때 그의 딸이 도왔다는 전설도 남아 있다. 또 그 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기름장수로 아버지의 지도제작을 도왔다고도 하지만 물론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다.

22첩의 가로 3m에 세로 7m지도

이 지도에는 산맥이 까만 줄로 굵고 가늘게 묘사되었고, 산들이 그려져 있는데 모두 2천8백개 정도나 된다. 또 하천이 그려져 있음은 물론이고 고을이 표시되고 길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길에는 10리마다 점을 찍어 금방 거리를 알아보게 만들었다. 그 밖에도 왕능, 봉수대, 역참(驛站), 창고, 성 등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가득 표시되었는데, 그것을 표시하는 부호도 아주 세련되어 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훨씬 전인 1834년에 이미 <청구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또 <청구선표도>(靑邱線表圖)라고도 알려져 있다. <청구도>는 이미 <대동여지도>의 훌륭한 부분을 대체로 나타내고 있고 그 정확도도 별로 떨어지지 않고 그 정보량도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다만 원래 <청구도>는 <대동여지도>와 거의 같은 크기의 지도에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지도의 빈 공간에 각 지역의 역사는 물론이고 물산 등까지 모두 설명해 넣었기 때문에 그냥 지도라기 보다는 지리지(地理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의 30년이 지난 1861년에 그가 <대동여지도>를 새로 완성한 것은 바로 이런 복잡한 지도를 조금 더 간편한 지도

로 만들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도로서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3년 뒤인 1864년에는 <대동여지도>를 재판 인쇄해 냈고, 아울러 같은 해에 <대동지지>(大東地誌)를 완성하여 자그마치 32권 15책이나 되는 대규모의 책 속에 우리나라의 지리지를 정리해 낸 것이다.

김정호의 이 지리지는 조선 초의 대표적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는 체제가 달라서, 각 지역의 고사, 고전, 시문, 인물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 대한 의식은 아주 철저해서 각 지역의 고적에 대한 고증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 책을 쓰기 위해 김정호는 중국측 자료 22종과 우리나라 자료 43종을 참고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가난한 평민 학자이며 지리학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김정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이나마 참고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의문은 그의 생애에서 그나마 알려져 있는 사실 한 가지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

을 것도 같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실학자 최한기의 친구였는데 바로 그 최한기가 당대에 온갖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혹시 김정호는 정말 형편없이 가난한 학자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친구 최한기로부터 얼마든지 많은 책을 얻어 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한기는 바로 그가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던 당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책을 참고해서 수많은 책을 지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실학자 최한기와 지구지도 제작

김정호는 바로 최한기와 함께 1834년에는 지구의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서울 송실대 박물관에 남아있는 낯쇠 지구지도 바로 최한기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에도 김정호와 협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정호와 최한기가 이때 만들었던 지구 의란 그의 <대동여지도>와는 달리 당시 중국에 들어왔던 서양 지리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1840년 전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당대의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의 <오주

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최한기가 중국에서 나온 세계 지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호가 대추나무에 이를 새겼다고도 전해진다.

정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라 안 방방곡곡을 뒤지고 다녔을까? 그는 백두산을 네 번이나 오르내렸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글에는 아예 10여회 오르내렸다고 적어 놓고 있기도 하다. 물론 아무도 김정호가 얼마나 국토를 실제로 답사하고 실측해서 이 지도를 만든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우리나라 지도가 옛날에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지도가 아주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김정호의 업적은 바로 그런, 지금은 흔적조차 잃어버린 많은 지도들이 바탕이 되어 태어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청구도>, <대동여지도>, <대동지지> 등은 모두 영인되어 도서관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다행이다. ⑤7

● 해외단신

고압선 전자장 암과 무관

고압선의 전자장이 암을 유발할 위험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필란드 헬싱키대학 베르카살로박사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반경 5백m 안에 고압선이 지나는 곳에 사는 성인 38만3천7백명을 20년간 조사 분석한 결과 이들의 암발생률이 일반 인구의 암발생률보다 오히려 2%가량 낮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가지 이상의 암 종류별로도 조사했으나 신경계암, 림프종, 백혈병, 유방암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피부암인 흑색종, 여성 결장암, 골수종 등 3종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